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t the Sunflower Center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Young Soon Kwon¹

권영순¹

¹Professor, Nursing Department, Munkyeong College, Korea, ever0706@naver.com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that applies Connelly and Clandinin's (1990) narrative inquiry method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work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t the Sunflower Center. There were a total of three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data collection methods includ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elephone consultations. The interview sessions lasted approximately 60 to 90 minutes, and each participant had two to four interview session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2022 to January 2023. Following the entire process of Connelly and Clandinin's (1990) narrative inquiry, the study progressed through the stages of "being in the field," "from field text to textual construction," "constructing field texts," "from field texts to research texts," and "writing research texts." According to Yeom (2003), these stages are not clearly distinct and tend to overlap with each other. Therefore, in this study as well, there was a repetitive cycle of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field and research texts. In conclusion, the meanings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t the Sunflower Center can be summarized as the "expansion of care through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the "expectation for nurses to play an extended role in the recovery of survivors." The "expansion of care through supportive relationships" refers to the unique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the virtues of caring, where trust and responsibility are essential. It was found that nurses provide emotional comfort to survivors experiencing negative emotions such as psychological distress, fear, conflict, and despair related to sexual violence, and they develop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urvivors by empathizing with them as fellow women. The "expectation for nurses to play an extended role in the recovery of survivors" involves nurses showing concern for the health of survivors, their families, and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performing nursing care to facilitate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daily life. Nurses are expected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diverse care, including information on nursing, social support systems, and legal services.

Keywords: Sunflower Center, Nurses, Work Experiences, Narrative

요약: 본 연구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 경험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Connelly와 Clandinin(1990)의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3명으로, 자료수집 방법은 개별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60분~90분 가량 소요되었고, 각 연구참여자는 2회~4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본 연구는 Connelly와 Clandinin(1990)의 내러티브

Received: March 06, 2023; 1st Review Result: April 22, 2023; 2nd Review Result: May 18, 2023
Accepted: June 30, 2023

탐구의 연구 전 과정에 따라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진행되었다. 엄지숙(2003)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와 단계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현장과 연구 텍스트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순환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으로 도출된 의미는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은 피해자와 돌봄의 미덕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로 신뢰와 책임이 관계의 필수이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 갈등,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하고, 함께 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은 피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 및 전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며 성공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돌봄제공자로서 간호와 사회적 지지체계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해바라기센터, 간호사, 일 경험, 내러티브

1. 서론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30,105건, 인구 10만명당 5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동안에는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용촬영의 범죄비율은 2011년 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대적 공감 요구에 따라 2012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 안이 가결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2][3].

성폭력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는 정책지원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주관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설립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의료, 사회복지,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4].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위기형, 지속지원과 심리치료에 초점을 두고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하는 아동형, 위기개입과 지속지원 영역을 포괄하며 성폭력 피해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유형별 접근하고 있다[5]. 이들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의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특성 상 교대근무를 하며,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긴 시간동안 연속적인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간호직군은 성폭력 범죄 기소에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를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 처치 및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성병의 관리,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치료비 지원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6][7]. 더욱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및 의류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인체분비물 혹은 세포를 채취하여 법적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적 증거 수집과 보존,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9]. 간호직군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피해자의 생명 보존과 인권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고도의 집중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 직군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10].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채취를 위해 면담을 통해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이 되며, 특히, 아동 피해자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비 인륜적인 사건 내용이나 납치, 감금 또는 심한 외상을 동반한 피해자도 접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지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어려움은 간호사에게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11-13].

그 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근무로 인한 피로는 간호직군 개인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14][15].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특수한 환경과 다양한 전문가 직군간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간호의 질을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직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종사하는 간호직군의 건강관리와 중재는 절실히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16].

그 동안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되고 있으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더욱이 간호직군에 대한 연구는 법의간호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있을 뿐, 업무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본질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다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직후의 위기상태에 개입하여 초기 면접과 증거채취, 사후 진료지원에 걸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경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이야기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감정소진을 관리하고 중재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피해자 지원업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Connelly와 Clandinin(1990)[18]의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대상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고 심도 있게 있는 그대로의 내러티브로 전해 줄 수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 중 임의편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료수집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가 원하면 중도에 면담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면담에 수락한 연구참여자 3명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중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선정기준으로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의 연령이나 근무기간에 양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별적 면담 횟수와 면담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에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연구자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사례 | 나이 | 학력 | 결혼여부 | 종교 | 근무기간 |
|----|----|------|------|-----|---------|
| 1 | 46 | 대졸 | 유 | 가톨릭 | 9개월 |
| 2 | 55 | 대졸 | 유 | 무교 | 1년 8개월 |
| 3 | 51 | 전문대졸 | 유 | 기독교 | 1년 10개월 |

2.3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질적연구학회의 회원으로 5회 이상의 질적 연구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과 그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경험과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2.4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1)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들과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연구자는 간호사가 병원이라는 공간적 제한성을 넘어 지역사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며 어떤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돌봄을 제공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간호사의 돌봄을 통해 피해자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색하므로써 본격적으로 간호사의 일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와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이 단계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단계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참여자에 따라 2회~4회 실시하였으며, 면담, 참여관찰, 전화면담, 현장노트 등을 통해 회기별로 60~90분 가량 면담시간을 소요하여, 2023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면담질문은 반구조적 질문형태로 ‘간호사로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돌봄경험은 무엇이고, 어떤 경험입니까?’등을 질문하였다.

3) ‘현장에서 연구 텍스트로’와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이 단계는 현장텍스트를 통해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계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과정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 주제 등을 찾아내어 연구텍스트로 재 구성하였다.

2.5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자료수집은 비형식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과 참여관찰, 전화면담, 현장노트 등을 사용하였다. 면담횟수는 2회~4회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회기별로 60~90분가량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면담시간의 길이를 조정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진행방식(ongoing)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르는 수준에서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Connelly와 Clandinin(1990)의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전 과정에 따라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진행되었다. 염지숙(2003)[19]에 의하면 이러한 단계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와 단계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현장과 연구 텍스트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순환으로 이루어졌다.

2.7 연구의 엄정성 확보

본 연구에서 엄정성(rigor)확보를 위해 Lincoln & Guba(1985)[20]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한 내용을 다시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임상간호사 및 타 직종 간호사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적용가능성(applicability)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자 선정, 자료 분석 등 모든 과정을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연구자는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해바라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

1) 간호사[1]의 이야기

이야기1: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음

센터에 내방하는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기대하게 된다. 그들의 피해진술과 증거채취 과정의 경험은 또한 앞으로의 일상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등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 막연함에 휩싸이기도 한다. 참여자는 피해 이후 불안과 긴장을 떨쳐버릴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문적 간호사로서 그들의 힘든 과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여기는 성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오면 어머니들도 화들짝 놀라 거의 멘붕상태로 오게 되는데 그럴때일수록 제가 고양되지 않고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요. 증거채취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서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일단 많이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지원이라든지 산부인과지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성인여성들도 심리지원을 받아보겠다. 정신과 진료 받겠다 등 어렵고 힘든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팀에서도 그런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증거채취를 하는 전 후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설명해드리고 눈 맞춤 해드리면 그분들이 훨씬 더 불안이나 긴장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2: 전인간호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건강 돌봄의 주체로서 센터에 방문하는 피해자의 고통 또한 개별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고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참여자는 강조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신건강의 회복 등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회복을 직접 도와주고 우울이나 불안, 두려움 등으로부터의 정서적 안정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전인간호에 기초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과 평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실 간호팀은 제일 중요한게 응급키트예요. 법의학적 증거니깐요. 키트를 하고 나서 산부인과 진료랑 원하면 정신과 진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한번은 정신과 처음 오시는 분인데 대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보호자도 옆에 계셨는데 정신과에 오기까지 매우 힘들었다. 상담소에서 상담도 해 봤는데 여기는 지원이 된다고 하니깐(중략)‘내가 그 동안 속고 산 것 같아서 부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하니깐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하니깐’이런 보호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동안 연계된 상담소에서 상담만 하는 건 피해자에게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상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전 과정을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깐 피해자들이 늘 같은 고민을 한단 말이죠. 상담받는 그때 뿐이고 일상생활 깊숙이,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인 간호가 안 되니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통합적, 전인적 간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간호사[2]의 이야기

이야기1: 사회적 인식과 정책변화를 위한 목소리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성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특정연령이나 특정 계층 혹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나이, 직업, 종교,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보호대상자들은 해바라기센터라는 공적체계에서 피해초기 위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자는 성폭력이 특정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만이 직면한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야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참여자는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분 존재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야기2: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상회복은 누구나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이 된다. 참여자는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그들이 2차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적 오명과 편견을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더욱이 실제 현장에서 친족 성폭력에 노출된 어린 미성년자들과 장애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성폭력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은 당시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참여자는 고통에 처해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몇 년전에 센터에 방문했던 분인데, 이 분이 주말에 가끔씩 전화를 해서 횡설수설 자기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횡설수설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처음 시작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이 노출된거서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분도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년의 나이인데 처음 그 성폭력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고통스럽다 보니 이 여자의 일생을 망쳐버린 것 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아니면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줬다면 이렇게 까지 자신을 망치면서, 울면서 센터에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깐(중략)... 특히, 미성년자들은 더 마음이 아파요. 국가기관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잖아요. 집행유예에 겨우...(중략). 정작 피해자들은 이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 간호사[3]의 이야기

이야기1: 단순 기능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느낌

해바라기센터는 공공이익에 대한 조직 성원으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적 지원,

심리지원의 전문가 기반의 통합지원으로 활동한다.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적 팀 협력체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이고 통합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는 이 같은 조직의 특성에 간호직군으로써 몇 가지의구심을 나타낸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중요한 증거채취는 병원 기반의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 사례관리자는 상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는 간호사가 단순히 응급키트만 시행하면 되는 단순 기능인으로 전략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참여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호전문화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리더 역할의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는 그래도 면허를 가지고 합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가인데 상담팀은 사실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도 많아. 사회복지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거야? 채용조건은 있지. 우리가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조건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아도 채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는 어디 그래? 그냥 면허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상담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정신간호학에 배우는 의사소통에 관한 기본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센터에서 주 사례관리자가 상담사니깐. 뭐랄까 메인이라고 할까?(중략)우리는 임상경력 가지고 면허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키트만 하는 사람이랄까? 우리도 지속적 사례관리가 되잖아? 근데 메인인 상담사니깐.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걸 표출하기 어렵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깐 다들 나가버린단 말이지.”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어떤 경험을 하며, 이들이 경험한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간호사의 일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으로 도출된 의미는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일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4.1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

돌봄은 간호 실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면서[21], 다른 사람을 돌보는 행위이며 관심과 정성, 대인관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22]. 이러한 돌봄의 결과는 치유와 만족,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23]라는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진정한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한 행동이 요구된다하겠다.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돌봄 행위는 단순히 법적증거 채취를 수집하는 역할을 넘어서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지속적인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다시말해, 업무환경에서 마주하는 대상자를 성폭력 피해자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미덕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로 신뢰와 책임이 관계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 대하듯 객관적인 행위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 갈등,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하고, 함께 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양수진, 신의진[24]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임상가는 범죄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외에 잘못된 통념이나 왜곡된 인식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을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참여자들은 해바라기센터라는 업무환경에서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인 돌봄 통합의 개념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2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

역할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조 내에서 특정위치와 지위에 관련 있는 행동의 기대나 규범의 준거틀로서 인식되고 정의되어 진다. 해바라기 센터는 지역의 위탁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간호를 시행하는 것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개인, 가족, 집단 및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모든 수준을 위해 질환관리 및 간호, 질병, 질환, 상해예방과 건강증진의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한다[25]. 지역사회 간호사는 학교, 사고모임, 다양한 지역사회조직에서 고 위험군에 속하는 간호대상을 발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건강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료 협력 사업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간호에 있어서의 역할 갈등과 역할 축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역할 갈등은 역할 집합의 구성원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해바라기 센터도 상담사, 경찰, 진술조력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분야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조정하는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아울러, 의료인인 간호사는 건강관리체계의 구성원으로 다른 조직보다도 각기의 전문적 가치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태도나 기준, 규범이 보다 더 두드러진 전문직의 특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정 대상자의 의료서비스에만 관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누리[2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피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 및 전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며 성공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돌봄제공자로서 간호와 사회적 지지체계 및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 표준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응급키트를 통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외에도 간호사의 간호활동과 역할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한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므로, 본 연구결과가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의 일 경험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해바라기센터 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성폭력 전담기간인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기간 등 대상자의 선택 영역을 넓혀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간호사의 역할을 정리·확대하면서 앞으로 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0)
Available from: <https://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
- [2]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exual Crimes, (2023)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Nm=%ED%98%95%EB%B2%95&urlMode=lsRvsDocInfoR&ancYd=20121218&ancNo=11574&chrClsCd=010202>
- [3] D. K. Lee, H. B. Kim,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Vol.22 No.5, pp.567-58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5.567>
- [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information, Feb 13 (2022)
Available from: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 [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information, Oct 18 (2021)
Available from: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 [6] S. S. Chio, H. S. H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Sexual Assault Counseling Agency Workers -Focusing on National Sunflower Center Worker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15), Vol.19, No.1, pp 10-20.
UCI: I410-ECN-0102-2021-500-000989410
- [7] J. S. Jun, H. S. Sim, S. A. Shi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Sexual Assault Victim Support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kers in the Counseling Center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4), Vol.34, No.3, pp.505-537.
DOI: <http://dx.doi.org/10.15709/hsr.2014.34.3.505>
- [8] E. M. Park, Knowledge, experience and interest on forensic medicine of nurses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9] N. Y. Jo, M. H. Kim, Y. M. Lee, Development of the Forensic Nursing Competency Scale for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20), Vol.13, No.3, pp.24-40.
DOI: <https://doi.org/10.34250/jkccn.2020.13.3.24>
- [10] J. Y. Yook, J. S. Kwak, The role of Forensic Nurse in the situation of Sexual Assault,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2006), Vol.1, No.1, pp.31-44.
- [11] S. Y. Jeon, J. Y. Ha, Traumatic Event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Symptoms among Emergency Nurses, *Korean Journal Adult Nurs*, (2012), Vol.24, No.1, pp.64-73.
UCI: G704-000678.2012.24.1.008
- [12] G. R. Kim, M. H. Sung, Influencing Factors on Forensic Nursing Role Performance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4), Vol.20 No.1, pp.64-74.
UCI: G704-000678.2012.24.1.008
- [13] J. S. Han, I. S. Park,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e Coroners, *Journal of Korean Acad Nurs*, (2008), Vol.38, No.2, pp.310-320.
- [14] Y. Y. Kim, H. S. Hyun, J. H.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Level,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5), Vol.24, No.4, pp.372-380.
UCI: G704-001949.2015.24.4.001
- [15] H. N. Choi, Comparing the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between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Ward and General Ward, Kony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7)

- [16] E. Y. Lee, E. H. Choi, H. S. Lee, The Effects of Sleep Disturb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neral Hospital Nurses'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021), Vol.3 No.3, pp.77-89.
DOI: <https://doi.org/10.35861/KJOH.2021.3.3.77>
- [17] S. M. Shin, The Impact of Secondary Trauma Stress on Occupational Stress Levels of Sexual Violence Support Workers :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Related Job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8), Vol.49, No.1, pp.109-132.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1.109>
- [18] F. M. Connelly, D. J. Clandinin,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90), Vol.19, No.5, pp.2-14.
- [19] J. S. Yeom,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The Concept, Procedure, and Dilemma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003), Vol.6, No.1, pp.119-140.
- [20]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1985)
- [21] J. Watson, New Dimensions of Human Caring Theor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88), Vol.1, No.4, pp.175-181.
- [22] E. J. Park, M. H. Kim, Characteristics of Nursing and Caring Concepts Measured in Nursing Competencies or Caring Behaviors Tool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 Vol.22, No.5, pp.480-495.
- [23] B. S. Lee, Concept Analysis of 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6), Vol.26, No.2, pp.337-344.
Available from: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46660>
- [24] S. J. Yang, Y. J. Shin, Y. Seo, Understanding of Sexual Violence and the Role of Health Care Provider in Korea,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 Vol.58, No.4, pp.260-269.
- [25] S. Y. Seo, Willingness to use and pay for nurse-visited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Chung-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 [26] S. Y. Son, The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Role Conflict on Job Embeddedness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9)
- [27] N. R. Jeong, Examining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Countermeasures among Nurs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23)